

-----  
**전체 주제:**  
**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인**  
**교회의 건축을 위한**  
**주의 회복의 내재적인 의미**  
메시지 1

**회복의 원칙, 회복에 관한 예언, 회복을 위한 기도**

성경: 마19:8, 램29:10, 14하, 30:3, 31:12, 32:39, 33:6-7, 단9:2-3, 17-19

**I. 회복의 원칙: “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”—마19:8.**

- A.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우리는 회복의 원칙을 본다.
1. 회복이란 본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.
  2. 우리는 본래로 돌아가되, 주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로,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바로 돌아가야 한다.
- B. ‘회복’ 이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어떤 것이 훼손되고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. 그러므로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, 그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—단1:1-2, 스1:3-11, 6:3-5.
- C. ‘회복’ 과 ‘경륜’ 이라는 말은 다른 두 관점에서 본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다—딤후1:4, 엡1:10, 3:9.
1.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경륜의 문제이고,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회복의 문제이다.
  2. 하나님의 경륜은 사도들을 통해 밝혀졌으나, 믿는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—3-5절, 행2:42.
  3.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가져야 하며, 그 후에는 이 이상의 지배를 받고 이 이상에 의해 통제되고 이 이상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,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—26:19, 잠29:18상.
- D. 교회의 회복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원래 있었던 것이 상실되고 손상되어 이제 그것의 원래 상태로 되돌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—마16:18.
1. 교회에 관하여 우리의 이상은 현재의 상황이나 전통적인 행습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표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—엡2:21-22, 3:3-5, 4:16.
  2.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성취와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회의 회복을 이해해야 한다—계4:11, 롬12:2, 4-5, 마13:31-33.
    - a. 하나님은 목적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며, 일단 그분이 무언가를 하고자 작정하시면 그 무엇도 그분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 그분을 멈추시게 할 수 없다—엡3:10-11.

- b. 사탄에 의해 야기된 파괴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전에 하신 것을 다시 하시고 대적이 파괴한 모든 것을 되돌리신다. 이것이 주의 회복이다.

**II. 회복에 관한 예언: “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”—렘 29:10.**

- A. “내가...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” —14하.
- B. “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” —30:3.
- C. “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와 선하심을 흘려보낼 것이라” —31:12상.
- D. “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...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” —32:39상.
- E. “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(예루살렘)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” —33:6-7.
- F. “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” —16절.
- G. 25장 11절과 29장 10절-14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위로로서 이스라엘의 포로 됨이 칠십 년만 계속되리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다.
  - 1. 다니엘같이, 사로잡힌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칠십 년이 차기까지 계속 살아 있을 것이다—단1:21, 6:28.
  - 2.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히도록 버리신 것과 같이 그들을 되돌리시되, 포로들로 되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개선 전사들로 되돌리실 것이다.

**III. 회복을 위한 기도: “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칠십 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”—단9:2-3.**

- A. 다니엘은 이스라엘 자손이 칠십 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었다. 그는 분명 이 말씀 위에 서서, 이 예언이 이루어져 포로들이 돌아오기를 여러 번 기도했을 것이다—렘25:11, 단9:2하.
- B.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에게, 그분의 백성에, 그분의 성전에,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그분의 성에 있었다. 또한 그는 그의 영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점유되어 있었다—2하-23절.
  - 1. 다니엘은 그의 필사적인 기도 속에서, 거룩한 땅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돌려보내시고 거룩한 성을 재건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했다—16-19절.
  - 2. 17절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최고봉에 이르렀다. “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취시옵소서” .